도굴꾼 탐욕에 사라진 옛 고승 진영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④ 상주 남장사의 도난 성보

사찰에서 도난당한 수많은 불교회화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종류는 신중도, 독성도, 산신도, 진영 등이다. 이 불화들은 규격이 작아 오려내기 쉽고,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지 않아서 일반 수집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가운데 진영은 고승(高僧)이나 조사(祖師) 등을 그린 그림으로 영정(影幀)이라고도 부른다.

진영은 일반 초상화와 달리 신앙의 대상인 종교미술로, 스님이 살아있을 때 제작되거나 입적(入寂)한 후 불화승을 모시고 그리게 하였다. 스님이 열반하신 후, 다비에서 나온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부도를 세우고 석비(石碑)를 건립하면서 진영은 별도의 공간인 진영각(眞影閣)에 모시게 된다. 해마다 기일(忌日)이 되면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여 스님을 기리는 제(祭)를 행하였다. 따라서 노장 스님들이 거주하던 사찰 진영각에는 창건주와 역대 고승들의 진영 수십여 점이 봉안된 예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진영이 봉안된 사찰은 유명한 산에 있는 대찰(大刹)이나 산 속의 작은 사찰이라도 고승대덕이 머물던 곳이다. 특히, 경북 지역은 산세가 깊고 풍광이 좋아 작지만 알찬 사찰들이 많은데, 문경 김룡사,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등은 조선후기 고승 진영이 가장 많이 모셔졌던 곳이다. 그 가운데 상주 남장사에 있던 진영들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 총 32점 가운데 현재 9점만이 남아있다.

남장사는 상주 노악산 중턱에 자리한 사찰로, 조계종 제8교구본사인 직지사의 말사이다. 남장사는 832년에 진감국사(眞鑑國師)가 창건하여 장백사(長柏寺)라 이름을 지었고, 1186년에 각원(覺圓) 스님이 현 위치로 옮겨 남장사라 하였다. 1203년에 금당(金堂)을 신축하고, 1473년에 중건하였지만, 임진왜란 기간 중에 소실되어 전쟁이 끝나고 1621년에 명해(明海) 스님이 영산전(靈山殿)과 1635년에 정수(正修) 스님이 금당 등을 중창하였다. 이후 1704년에 진영각(眞影閣)을 신축하고, 1709년에 민세(旻世) 스님이 영산전을 중수하였으며, 1761년에 상로전(上爐殿)을 새로 건립하였다.

또한 1856년에 진허(鎭虛) 스님이 극락전과 조사각을 중건하고, 1867년에 응월(應月) 스님이 영산전을 중수하였으며, 1889년에 보광전을 건립하였다. 남장사는 1903년에 함월(涵月) 스님이 칠성각을 건립하고, 1907년에 덕암(德巖) 스님이 염불당(念佛堂)을 세웠다.

따라서 진영과 관련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1704년에 진영각을 새로 짓고, 1856년에 조사각을 중건한 것을 보면, 18세기 전반에도 상당히 많은 진영이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구체적으로 어느 스님의 진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진영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면, 도난 이전 진영은 진영각과 관음전에 나누어 봉안되어 있었다.

이 진영에 대해서는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상주 남장자 재산대장에 '달마조사(達摩祖師), 나옹존자(懶翁尊者), 진감국사(眞鑑國師), 환적선사(幻寂禪師), 청허화상(淸虛和尙), 사명화상(泗溟和尙), 조영당(昭影堂), 백설당(栢雪堂), 백봉당(白峰堂), 만성당(晩醒堂), 상남당(尙南堂), 인월당(印月堂), 환성당(喚醒堂), 포월당(抱月堂), 취진당(醉眞堂), 월송당(月松堂), 계허당(桂虛堂), 환응당(喚應堂), 쌍운당(雙雲堂), 충허당(w虛堂), 취봉당(醉峰堂), 쌍월당(雙月堂), 성파당(星波堂), 성파당(性波堂), 쌍원당(雙圓堂), 계허당(繼虛堂), 기암당(奇岩堂), 은봉당(隱峰堂), 남월당(南月堂), 성봉당(聖峯堂), 노은당(盧隱堂), 응월당(應月堂)' 으로 총 32점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었다. 1932년 12월에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소장품목록에 조사영탱이 31점으로 줄어들었지만, 정영호 교수가 조사해서 간행한 〈상주지역 고적조사보고서(단국대 출판부, 1969)〉에 남장사 유적과 유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았다.

도난 이전, 응향각에 봉안된 진영 가운데 달마조사진영의 하단에 '嘉慶十七年ㅁㅁ」月十八日南長寺ㅁ」宗像同時新ㅁ…」成奉安于…' 라는 화기가 적혀 있고, 화면의 구성과 자세 및 색의 사용 등이 유사한 진영은 1812년(가경17)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진영들의 크기는 약간이 차이가 있지만, 세로 114㎝×가로 78.7㎝와 세로131.3㎝×가로83.6㎝로 나뉘어져 진영의 조성시기와 작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관음전에 봉안된 진영은 총 20점으로,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재산대장과 정영호 교수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69년까지 진영들이 보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영각과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던 진영은 1991년 2월 27일에 도난당해 〈불교문화재 도난문화재 증보판(2017)〉에 22점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도난된 진영 22점 가운데 노은당대선사장현 진영과 쌍원당대선사민관 진영은 현재 관음선원에 소장되어 있다(〈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Ⅱ①〉).

이외에도 관음선원에 기암당대선사연 진영, 남월당대선사수행 진영, 성파당대선사도언 진영, 성파당대선사우삼 진영, 은봉당대선사서규 진영, 응월당대선사인문 진영, 취봉당대선사포현 진영이 봉안되어 있기에 32점 가운데 9점이 남장사에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원래 있던 32점 가운데 9점이 남아있고 총 23점이 없어진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포월당초민대사 진영, 쌍월당대선사 채붕 진영, 성봉당대선사길선 진영은 도난된 상황이라면 사찰에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나 종단에 도난 신고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없어졌지만 사진이 확인되지 않는 진영 일부는 정영호 교수의 보고서를 참조하면 규격과 화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쌍월당대선사채붕 진영에 대해서는 '118.6㎝×81.4㎝로, 뒤에는 칠폭(七幅)병풍을 두르고 수놓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수(右手)로는 염주(念珠)를 넘기고 있으며 좌수(左手)로 가늘고 긴 석장(錫杖)을 잡고 있다. 목에는 뚜렷한 삼도(三道)의 표식이 있음이 흥미롭다' 라고 쓰여 있다. 대략 화문석 위에 앉아 있으며 염주와 석장을 든 자세를 취한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도난 이전에 촬영된 사진만 구한다면 진영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사찰에서 외부로 유출된 진영은 박물관이나 개인의 수집과 관람의 대상이지만, 고승 진영은 선불교의 융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사 신앙의 예배 대상이라서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다. 따라서 진영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의 표상과 종교적인 상징성을 올바로 찾기 위해서는 사찰 밖으로 유출된 진영들의 현황이 시급하게 공개되고 연구되었으면 한다.

사찰을 떠나 속세에 있더라도 단지 아취로서의 수집과 작품 관람의 대상이 아닌 한국불교에 족적을 남긴 큰스님의 삶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랄 뿐이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의 말사인 남장사에는 달마조사를 비롯해 32명의 조사 진영이 있었으나 지금 23점이 도난된 상황이다. 사진 왼쪽부터 달마조사진영(남장사 진영각, 1991년 도난), 진감국사진영(남장사 진영각, 1991년 도난), 월송대선사상청진영(남장사 관음전, 1991년 도난)

고승 진영 32점 간직했던 남장사
현재 9점만… 대부분이 '오리무중'
1969년 조사엔 존재, 이후 도난

진영은 韓 조사 신앙의 중요 사료
제자리에 있을 때 바른 의미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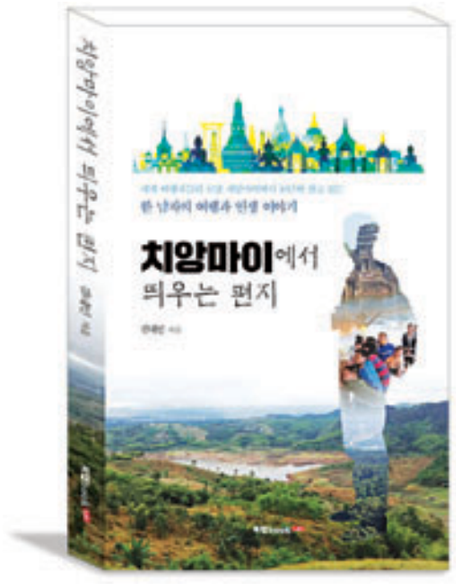
조선총독부의 재산대장 중 남장사 진영 목록.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서 소장 중이다.

상주 남장사 진영의 시기별 조사 현황

	남장사 재산대장	상주지역 고적조사보고서 (1969년 간행)	불교문화재 도난문화재 증보판 (2017년 간행)	비 고
1	달마조사	達摩祖師眞影	達摩祖師眞影	도난 신고
2	나옹존자	懶翁尊者眞影	懶翁尊者眞影	〃
3	진감국사	眞鑑國師眞影	眞鑑國師眞影	〃
4	환적선사	幻寂禪師眞影	幻寂禪師眞影	〃
5	청허화상	淸虛和尙眞影	淸虛和尙眞影	〃
6	사명화상	泗溟和尙眞影	泗溟和尙眞影	〃
7	소영당	昭影堂眞影	昭影堂眞影	〃
8	백설당	栢雪堂大禪師贊修之眞	栢雪堂大禪師贊修眞影	〃
9	백봉당	白峰堂大禪師信嚴之眞影	白峰堂大禪師信嚴之眞影	〃
10	만성당	晩醒堂大禪師元曄眞影	晩惺堂大禪師元曄眞影	〃
11	상남당	尙南堂永察禪師之眞影	尙南堂永察禪師眞影	〃
12	인월당	先師印月堂大仁之眞	先師印月堂大仁眞影	〃
13	환성당	喚醒大師之眞	喚醒大師眞影	〃
14	포월당	抱月堂楚旻大師之眞		도난 미신고
15	취진당	醉眞堂處淋大師之眞	醉眞堂池淋大師眞影	도난 신고
16	월송당	月松堂大禪師尙淸之眞	月松堂大禪師尙淸眞影	〃
17	계허당	桂虛堂靈心大師眞影	桂虛堂靈心大師眞影	〃

	남장사 재산대장	상주지역 고적조사보고서 (1969년 간행)	불교문화재 도난문화재 증보판 (2017년 간행)	비 고
18	환응당	宗正都摠攝喚應堂之眞影	宗正都摠攝喚應堂眞影	〃
19	쌍운당	八道糾正兩宗正事雙雲堂大禪師之眞	八道糾正兩宗正事雙雲堂大禪師眞影	〃
20	충허당	w虛堂大禪師旨册之眞影	w虛堂大禪師旨册眞影	〃
21	취봉당	翠峰堂大禪師抱玆之眞		관음선원 봉안
22	쌍월당	雙月堂大禪師采朋之眞		도난 미신고
23	성파당	星波堂大禪師友三之眞		관음선원 봉안
24	성파당	性波堂大禪師道彦之眞		관음선원 봉안
25	쌍원당	雙圓堂大禪師敏寬之眞	雙圓堂大禪師敏寬眞影	관음선원 봉안 (도난신고 오류)
26	계허당	繼虛堂大禪師普演之眞	繼虛堂大禪師普演眞影	도난 신고
27	기암당	奇庵堂大禪師演之眞		관음선원 봉안
28	은봉당	隱峰堂大禪師瑞奎之眞影		관음선원 봉안
29	남월당	南月堂大禪師守幸之眞		관음선원 봉안
30	성봉당	聖鳳堂大禪師吉璇之眞影		도난 미신고
31	노은당	魯隱堂大禪師莊賢之眞影	魯隱堂大禪師莊賢眞影	관음선원 봉안 (도난신고 오류)
32	응월당	應月堂大禪師寅文眞影		관음선원 봉안

* 남장사 재산대장은 20세기 전반에 작성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치앙마이 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 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부처님 복장점안 장엄구

제불보살 및 각종 산신 · 나한 · 독성 · 탱화 · 개금불사



40년 장인 정신이 함께 숨쉬는 곳
유상아트공예

■ 구입상담문의 | 전화 : 031)314-3542 H·P : 010-3727-1577
■ 불복장의식문의 | 일여스님(불복장의식 연구소장) H·P : 010-9598-0361
■ http://cafe.daum.net/jo sang Gyeong 다음카페 → 조상경복장단의식
■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392-2